

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

<수가성 여인의 절망과 희망>

9/2(주일) 설교 내용

요한복음 4:1-20

1. 내가 만약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, '네 남편을 불러오라' 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

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,
남편이 다섯명이나 바뀌었고, 심지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,
남편은 아니었습니다.
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는 치부와도 같았던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,
"네 남편을 데려오라"고 말씀하십니다.
이에 대해,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 하지 않고,
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.

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?

또, 우리가 만약 이 여인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, 과연 여인과 같이
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?

조금 더 깊이 들어가..

우리 마음 속에, '나는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나은 사람이다' 라는 마음이
무의식중에 있다면,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?

혹, '남편을 여러 번 바꾼 부끄러운 과거' 때문은 아닌가요?

그렇다면, '정직성' 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가요?

'정직함'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는 이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

2.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,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겪었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그녀는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며, 참된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.
하지만, 그 방황은,
예수님을 만나자 끝이 납니다.
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.
"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,
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"
이제 시선을 '나'에게 돌려,
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경험하게 된 변화는 무엇인지,
예수님을 만나 끝이 나게 된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,
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3.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무엇인지,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,
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고,
또 그것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다면
함께 나누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